



취보 선배의 가장 현실적인 합격 노하우

# 취준노트

토게토게 지음



“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지고지순하게  
한 우물만 파고 있을 취준생들에게 바치는 책

# 취준노트

지은이 **토게토게(togeworld@gmail.com)**

2년간의 취준, 5번의 인턴, 15번의 최종 탈락 끝에 취보를 이룬 이 시대 청년 실업의 아이코니자 취업 준비계의 장인이다. 공기업 1년 재직 후 퇴사, 약 1년간의 개인사업, 그리고 연이은 경력 이직까지 경험했다. 이와 동시에 취준 스토리를 담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는 큰 위로를 얻은 사람들과 덕분에 취업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 지금은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성장했다. 그리고 취준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 『취보사전』을 출시하여 텀블벅에서 6.797% 펀딩 달성률을 기록하는 등 평소 버킷리스트였던 '취업 노하우 전하기'를 활발하게 실현하고 있다.

## 일러두기

이 책은 2023년 12월까지 수집한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실고자 노력했지만, 기업과 자격증에 관한 정보는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 취보 선배의 가장 현실적인 합격 노하우 **취준노트**

**초판 발행** 2024년 1월 3일

지은이 토게토게 / **펴낸이** 전태호

**펴낸곳** 한빛아카데미(주)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62 한빛아카데미(주) 2층

**전화** 02-336-7112 / **팩스** 02-336-7199

**등록** 2013년 1월 14일 제2017-000063호 / **ISBN** 979-11-5664-009-7 13320

**책임편집** 김현용 / **기획·편집·진행** 김민승

**디자인** 이아란 / **전산편집** nu:n / **제작** 박성우, 김정우

**영업** 김태진, 김성삼, 이정훈, 임현기, 이성훈, 김주성 / **마케팅** 길진철, 김호철, 심지연

**감수** 강미단, 김근홍, 김소연, 김예솔, 김예은, 김유경, 김주찬, 송형호, 양진서, 오금미, 위혜리,

조혜원, 차정은, 한지민, 허수정, 허은지

이 책에 대한 의견이나 오탈자 및 잘못된 내용에 대한 수정 정보는 아래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드립니다. 책값은 뒤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hanbit.co.kr](http://www.hanbit.co.kr) / **이메일** [question@hanbit.co.kr](mailto:question@hanbit.co.kr)

Published by HANBIT Academy, Inc. Printed in Korea

Copyright © 2024 토게토게 & HANBIT Academy, Inc.

이 책의 저작권은 토게토게와 한빛아카데미(주)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책으로 파내고 싶은 아이디어나 원고를 **메일(writer@hanbit.co.kr)**로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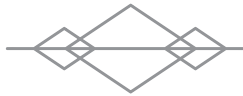
한빛아카데미(주)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보 선배의 가장 현실적인 합격 노하우

# 취준노트

토게토게 지음



##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취준을 하고 있는 걸까?

“자소서 30개 이상씩은 써야지.”

시끌벅적한 맥주집에서 살얼음 맥주를 한 잔 들이켜며 듣는 친구의 이야기는 가히 놀라웠다. 첫 시즌에서 고작 세 개의 서류만 통과한 나와 달리, 그 친구는 교내 취업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취업 교수님의 코칭을 받으며 한 시즌만에 취업에 성공한 상태였다.

친구는 나에게 ‘일단 서류를 많이 쓰라’고 말했다. 그 취업 프로그램을 수강한 다른 수강생들 역시 한 시즌당 50개, 80개씩 서류를 제출한다면 보통 3시간, 빠르면 30분 안에도 서류 하나를 후다닥 제출한다고 했다. 나는 서류 하나를 쓰는 데 2~3일씩 붙잡고 있을 때였다.

이외에도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당시 혼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나에게 마치 신세계 같았다. 이력서를 쓰는 방법, 면접 준비하는

방법,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좋은 곳이라는 회사 이름들까지, ‘지금까지 이런 꿀 정보를 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했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자소서를 쓰며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했는데, 단지 제출한 서류 양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최종 합격하지 못했던 이유로, 마치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게으름뱅이가 된 것 같은 느낌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다. 한편으론 이런 의문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을까?’

나처럼 순진하게 서류 하나만 며칠씩 붙들고 있는 걸까? 만약 오늘 들은 이 정보가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차라리 일을 잘 하는 순서대로, 열심히 살아온 순서대로 취업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이렇게 ‘꽤 괜찮은’ 스펙으로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아직도 시중은행 면접을 보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솔직히 블라인드인 은행 면접에 그렇게까지 고스펙자가 많은 줄은 몰랐다. 고학벌의 사람들, 전문직 시험, 고시 준비를 하다 온 사람들... 그 중 나만큼 취준을 오래 한 지원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이렇게 취준을 오래 할진 몰랐다고…….’

그날 집에 가면서도,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들이 계속 생각났다. 모두 자리에 앉아 뭐 해오라고 시키면 다 잘 해갈 사람들이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흔히 말하는 ‘스펙’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나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엄청나게 책망했다. 자괴감이 들었고 스스로가 문제라고 생각해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막상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는 걸 보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당신 역시 과거의 나처럼 취업이 안 되는 이유와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며 자책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결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의 스펙이 부족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인상이 나빠서도, 말을 못해서도 아니다. 그냥 단지, 지금의 사회가 많이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그런 것뿐이다.

이 책을 과거의 나처럼 아무런 정보도 없이 지고지순하게 한 우물만 파고 있을 취준생들에게 바친다. 이 책이 없어도 당신은 어쨌든 최종합

격 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만, 이 책은 무작정 자소서만 쓰고 있었던 당신에게 채용 시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취업 준비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나 승진 같은 것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최종 합격한 후의 기쁜 소식은 유튜브에 댓글로 공유해주면 좋겠다. 그 댓글을 읽는 나도 무척이나 행복할 것이고, 그 댓글을 보는 구독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당신의 최종합격을 미리 축하한다!



## 취준노트 미리보기

### 토게토게의 첫 취업 준비 당시 이력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의 취준 당시 이력을 간략히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게토게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① 지원분야: 마케팅/광고
- ② 학력사항: 서울 소재 대학, 비경영 + 경영학 복수전공, 4.14학점(4.5 만점)
- ③ 자격증/면허증
  - 한국한자검정 3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무역영어 1급
  - GAIQ
- ④ 어학시험
  - OPIc AL
  - TOEIC 945
  - JLPT N1
- ⑤ 경력사항
  - 해외 인턴(프론트 서비스 직무, 2개월): 학교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근무
  - 중소기업 인턴(마케팅 직무, 2개월): 학교 현장실습으로 근무
  - 대기업 파견직 인턴(마케팅 직무, 3개월): 관심 직종에 선망했던 기업이라 지원하여 근무
  - IT기업 계열사 아르바이트(영업지원 직무, 3개월): 두 번째 시즌이 끝난 후, 공백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 찾은 일자리
  - 대기업 전환형 인턴(광고 직무, 2개월): 가고 싶었던 업계의 한때 선망했던 기업이라 무조건 지원했고 운이 좋게 최종 합격(인턴)했지만 전환 탈락

### 취준노트 주요 목차

취업 준비의 시작인 대학생활부터 취뽀 이후 사회 생활까지, 취업 준비의 시작과 끝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실질적인 정보들과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노하우로 이해도와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학년별<br>대학생활의<br>기술 | 스펙을 쌓고<br>경험을<br>정리하는 기술 | 효과적으로<br>서류와 시험을<br>준비하는 기술 | 떨어지지 않는<br>면접의 기술 | 사수도<br>알려주지 않는<br>회사 생활의 기술 |

### 취준노트에 담긴 주요 팁

경험으로 얻은 팁들과 취준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다음은 그 일부이며, 본문에는 더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바로 취준 vs 스펙 쌓고 취준
- 인턴 지원 관련에 대한 모든 것
- '전환형 인턴'을 하고 있다면...
- 나만의 '신의 직장' 찾는 법
- '면접 복장' 완벽 정리
- 면접관을 '사로잡는' 비법

\* 차례

Intro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취준을 하고 있는 걸까? • 004

## 1단계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위해

졸업 그 후, 내게 남았던 아쉬움들 • 015

1학년: “선배들이 무조건 놀래요” • 022

2학년: 대학생의 특권을 누리자 • 026

3학년: ‘3학년’이라 쓰고 ‘사망년’이라 읽는다 • 034

4학년: 어서 와, 취준은 처음이지? • 039

[부록] 인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 042

## 2단계 취업 기본기 다지기

지피지기의 자세, 채용 시스템을 알고 나를 알자 • 051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직무 선정하기 • 057

[부록]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 063

스펙 쌓기 STEP 1:

기본 스펙,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것부터 • 065

스펙 쌓기 STEP 2:

직무 스펙, 전문성의 표현은 이렇게 • 079

스펙 쌓기 STEP 3:

차별화 스펙, 나만의 무기 만들기 • 101

[부록] '전환형 인턴'을 하고 있다면... • 110

한 게 없다고요? 쌓은 스펙 정리하기 • 114

### 3단계 합격률을 높이는 총알 장전 방법

서류, 몇 개나 제출해야 할까? • 123

[부록] 나만의 '신의 직장' 찾는 법 • 129

인사담당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자소서 작성법 • 138

자기소개서 소재를 선별하는 전략 • 154

자기소개서 소재 배치 전략, 킬러 문항부터 지원동기까지 • 160

자기소개서만큼 중요한 이력서 작성법 • 171

하다 보면 는다! 인적성/NCS 공부 가이드라인 • 190

이것도 노하우가 있다고? 인성 검사 팀! • 204

[부록] 토게토게의 '오답노트' 작성법 공개 • 208

### 4단계 뭉가 끌리는 면접자

완벽한 첫인상을 위한 기본 요소 • 211

짧게 핵심만 말하는 면접 답변 전략 • 222

합격 기운을 끌어들이는 마인드셋 • 229

[부록] 정장부터 비즈니스 캐주얼까지, '면접 복장' 완벽 정리 • 232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스토리텔링 화법 • 237

이 질문만은 꼭! 면접 필수 대비 질문 • 245

3초 만에 결판내는 자기소개 기술 • 255

현직자 빙의! 너무 쉬운 직무 면접 대비 • 261

**[부록]** 면접관을 '사로잡는' 비법 • 270

듣다 보면 빠져드는 경험 말하기 기술 • 273

'마지막 할 말'에도 전략이 있다 • 279

**[부록]** 내 안의 '간절함'을 전달하는 법 • 284

토론은 이기는 게 아냐, 토론 면접 팁 • 287

스티븐 잡스 빙의! 속속 박히는 PT면접 발표 가이드 • 293

최고의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 면접 복기하기 • 300

최종 면접 전략? 전략이 없는 게 전략! • 304

**[부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 • 308

## 5단계 **사회생활** 맛보기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회생활 기본 매뉴얼! • 313

이것만 잘해도 플러스! 은근히 떨리는 전화 받기 • 323

메일, 이렇게만 써도 '뚝부러진다'는 소리 듣는다! • 327

은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예의'에 대하여 • 335

**Outro** 지금의 시련이 나중의 거름이 되길 • 340

4단계

---

---



뭔가 끌리는 면접자





##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스토리텔링 화법



이전까지는 면접에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접에서 답변하는 기술 중 하나인 ‘인간적으로 대답하는 노하우’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나는 면접 스터디에서 항상 ‘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리 준비한 것처럼 바로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랜 취준 끝에야 그런 식의 ‘자동대답’이 면접에서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어떤 질문에도 고민 없이 1초 만에 답을 내놓는 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한다는 느낌보단 ‘기계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람 냄새를 풍기면서 말의 퀄리티까지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 화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 1. 진정성이 기본이다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1초 만에 완벽한 답변을 내놓는 것은 면접관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면접 자판기’와 대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외운 답변이라도, 면접관의 질문에 바로 답을 하기보다 1초에서 3초 정도 적당한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외운 답변이 아닌, 정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면접에선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하겠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 모르는 질문이 나왔다고 굳이 당황한 표정을 숨길 필요도 없다. 어떨 때는 적당히 당황도 하고, 어떨 때는 신중하게 고민도 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진정성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최대한 좋은 답변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실제 에피소드

나 역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은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연히 이는 바가 없었으나, 그래도 ‘어떻게든 답변은 하자’는 생각에 버벅거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답했다. 다행히도 노력하는 모습을 면접관들은 흐뭇하게 바라봐 주셨고, 결국 준비도 하지 않은 면접에서 수십여 명의 지원자 중 단 두 명만이 통과한 최종면접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답변 하나 때문에 해당 면접에 합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대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면접관에게는 오히려 좋게 보였던 것 같다.

## 2. 구연동화 하듯이 말하자

아이들에게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선생님을 떠올려보면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 말하면서, 중간중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천천히 말하기도 한다. 면접 답변 역시 이와 비슷하게 어린아이에게 설명한다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선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부분에선 느리게 말하면서 말에 완급을 두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자가 모든 답변을 같은 톤과 같은 속도로 이야기한다. 이러면 말에 진정성이 담기지 않을 뿐더러, 말의 내용도 면접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구연동화를 한다 생각하고 모든 문장에 진정성을 담아 이야기하면 말의 전달력도 높아질뿐더러 집중도도 높일 수 있다. 아쉬웠던 점은 정말 아쉬웠다는 듯이, 배운 점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내용에 맞게 표정을 바꾸고, 말 속도도 달리 하면서 말의 완급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3. 말에 따옴표(‘ ’)를 붙이자

스토리텔링 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따옴표다. 따옴표만 붙여도 말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친근감 있게 느껴진다. 따옴표를 붙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인용 표현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 스토리텔링 화법: 따옴표 활용 예시

### 예시 1.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A. 아르바이트를 하며 ...를 제시했더니 수익이 120% 정도 올라가고, 사장님께서도 '어쩔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네! 정직원으로 뽑고 싶다!' 하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 예시 2.

Q.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A.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여기서 이런 오해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시 1]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님께 칭찬받은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걸 단순히 '... 을 해서 사장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라고만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와닿지 않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그냥 뻔한 인사치레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정말 그 성과를 강조하고 싶다면, 일명 '동네 아주머니 화법'으로, 사장님께 받은 칭찬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는 [예시 2]처럼 '갈등 상황에 본인은 어떻게 대처했냐'는 질문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단순히 '직접 친구들을 만나 각자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와닿지 않는다. 다른 지원자들의 대답과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들린다. 예시의 답변을 참고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엔 따옴표를 적극 활용하여 당시 상황을 더 리얼하게 표현해보자. 이렇게

말에 따옴표를 넣는 것만으로도 당시 상황이 더욱 입체적으로 전달되고, 기계 같던 답변은 훨씬 인간적으로 들린다.

#### 4. 비교/대조를 활용하자

비교/대조는 대표적인 강조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면접에서 비교/대조를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머리에 ‘처음에는…’을 넣는 것이다. 이는 특히 ‘깨달음’이나 ‘배운 점’을 언급할 때 활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하며 무엇을 배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원자들은 ‘…해서 …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는 식의 평이한 문장으로 대답한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는’이란 말머리만 붙여도 답변이 더 전문성 있게 들린다. ‘처음에는’ 화법은 [예시 2]와 같이 직무 관련 질문에 활용할 수 있다.



## 스토리텔링 화법: 비교/대조 활용 예시

### 예시 1.

Q. 프로젝트를 하며 무엇을 배웠습니까?

A. 네, 저는 OOO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실험을 하면 당연히 A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해보니, 과정 중 B, C라는 변수가 발생하였고 실제론 D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아, 조금 만 각도를 바꿔 생각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예시 2.

Q. 영업에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눈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영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화려한 언변이나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OOO에서 일해보니, 영업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살피며 적절한 타이밍에 말을 하는 '눈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5. 두루뭉술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바꾸자

답변 퀄리티를 낮추는 대표적인 요인이 '두루뭉술한' 설명이다. 이런 표현들은 안 그래도 지루한 답변이 더 귀에 안 들어오게 한다.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일수록 추상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고, 말은 긴데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에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답변 질이 훨씬 올라가고 내용도 귀에 잘 들어오게 된다.



## 스토리텔링 화법: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시

**상황** 옷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때

### 두루뭉술한 표현

옷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 안 좋아요. 그리고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 소비되는 모든 것들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 구체적인 설명

우리는 안 입을 옷을 의류수거함에 버리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잘 입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류수거함에 버리는 옷의 대부분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소각되지도 못한 채 남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하천, 사막 등에 기괴한 산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10%를 차지할 만큼 석유 다음의 환경 파괴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말했을 때 듣는 이에게 전달도 잘되고 '옷을 함부로 사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경각심까지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표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장점에 대한 질문에 '소통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답을 내놓는다고 하자. 이런 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와닿지도 않고, 다들 하는 말이기 때문에 별로 장점이란 생각도 들지 않는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은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소통 능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가진 소통 능력이 ‘어떤’ 소통 능력인지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설득을 잘해서 누구든 내 편으로 만든다’든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 고민 상담을 많이 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한 번에 외닿는’ 대체 표현을 찾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 옆에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다. 내가 ‘나의 장점은 소통 능력이야’라고 했을 때, 옆에서 ‘언제 그걸 느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라는 꼬리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면접 파트너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면접에서 말하기 좋은 표현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면 실제로 면접관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답변을 만들 수 있다.



## 이 질문만은 꼭! 면접 필수 대비 질문



면접을 본다면 꼭 대비해야 하는 ‘필수’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 이번에는 당장 내일 면접을 보는 사람을 위한 필수 대비 질문과 대비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1. 기본 질문 ‘4종 세트’



#### 기본 질문 ‘4종 세트’

1. 자기소개: 40초 정도로 준비
2. 지원동기: 업계 지원동기, 회사 지원동기, 직무 지원동기로 세분화하여 준비
3. 장단점: 관련 사례와 함께 준비
4. 마지막 할 말



기본 질문 '4종 세트'는 직무, 회사 상관없이 무조건 준비해야 한다. 자기소개는 40초 정도로 준비하되, 30초 이내로 짧게 해달라거나 지원 동기를 포함해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뒀야 한다. 지원동기는 업계 지원동기, 회사 지원동기, 직무 지원동기를 모두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회사 지원 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회사 선택 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거나,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요소(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를 찾아보면 좋다. 장단점의 경우 관련 사례도 1~2개씩 함께 생각해 두고, 단점의 경우 극복 방안도 같이 준비한다.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는 이후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2. 직무별 필수 질문

직무별로 면접에서 꼭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 '직무별' 필수 질문 예시

- 마케팅: 우리 회사 상품(서비스)의 마케팅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 인사: 최근 노동 이슈(성고급 이슈, 재택근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업 관리: 담당 지점의 영업 직원(매니저, 여사님 등)이 본사 지침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회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셨나요? / (회계 용어 제시 후) 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이공계: (전공 용어 제시 후) 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나요?
- 직무 무관: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덧붙여) 그 역량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여기서 제시한 예시는 직무별 대표 질문을 하나씩만 뽑은 것이다. 이외에도 약간의 변형이나 파생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의 경우, 마케팅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것 외에 최근 회사에서 진행한 마케팅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것이나 특정 전략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달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직무 관련 기본 질문들과 더불어 그 질문에서 뻗어 나올 수 있는 비슷한 다른 질문들까지도 다양하게 생각해 두면 좋다.

### 3. 경험 질문

대표적인 경험에 대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경험 질문' 대비용 핵심 키워드

- 도전했던 경험
- 힘들었던 경험
- 실패했던 경험
- 성공했던 경험
- 협업했던 경험
- 갈등을 해결한 경험
- 설득한 경험

경험 질문은 '질문 → 경험' 순으로 대응하며 준비하는 것보다 '경험 → 질문'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즉, 자신의 대표 경험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한 후, 그것을 도전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협력했던 경험 등으로 끼워 맞추는 방법이다. 경험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호환될 수 있다. 대표 경험 3~5가지를 먼저 정해 놓고, 그 경험들로 모든 경험 질문에 대응 가능할 수 있게 '돌려막기' 전략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면접 준비를 하자.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에서 PPT 템플릿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또래는 쉽게 하지 않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면에서 이는 '도전했던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을 때 일주일간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던

경험'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수십 건의 주문을 받으며 기업으로부터 회사소개서 제작 문의도 받았던 것은 '성공했던 경험'이다. 이렇게, 한 가지 경험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다양한 경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경험 질문에 답할 때는 답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황 설명을 하며 말이 장황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보다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행동' 위주로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듣다 보면 빠져드는 경험 말하기 기술'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 4. 이력서 질문

다음은 이력서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이다.



##### '이력서' 질문 예시

- 인턴 또는 경력 관련 질문
  - (정규직 경력이 있을 경우) 퇴사 사유에 관한 질문
  - 자격증에 관한 질문
  - 기타 질문
- 졸업 시기 및 휴학 관련 질문  
(전문직 시험 준비 경험이 있을 경우) 전문직 시험 준비에 대한 질문

## 인턴 또는 경력 관련 질문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력 사항이다. 인사담당자가 단기간에 지원자의 업무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무를 하며 좋았던 것과 힘들었던 것, 배운 점 등을 한 가지씩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퇴사 사유에 관한 질문

정규직 경력이 있다면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 퇴사 사유다. 퇴사 사유로 대답하기에 가장 적절한 답은 ‘경력 개발’이다. 즉, 한 회사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후 더 크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한 커리어적인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차가 낮은 중고 신입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해볼 건 다 해본 후’라는 단서를 달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력을 개발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에 있었음을 짚어줘야 한다. 예컨대 사수가 없어 신입으로서 첫 일을 배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공공 부문 특성상 부서가 주기적으로 바뀌어 경력 개발에 한계가 있는 환경이라든지, 업계 특성상 해볼 수 있는 업무 종류에 한계가 있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 퇴사 사유가 현재 지원하는 회사의 특징과 겹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에서 대학으로 이직할 때는 퇴사 사유

로 '부서가 매년 바뀌어 경력 개발에 한계가 있어 보였다'고 말하면 안 된다. 대학 역시 공공 부문처럼 부서가 계속 바뀌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반드시 다른 이직 사유를 생각해내야 한다. 하지만 퇴사 사유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하더라도 무조건 공격이 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예: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퇴사하실 생각인가요?) 이런 점은 중고 신입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때 너무 계산해서 답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진실됨'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라.

### **자격증에 관한 질문**

이력서에 기입한 자격증에 대한 질문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나는 면접자리에서 무역 영어를 왜 땀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라도 도움되는 활동을 하자는 생각에 무역 영어 시험을 공부해서 단번에 합격했다'고 답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이 직무에서 영어 쓸 일이 많을 것 같아,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어서 어찌구' 이런 식으로 꾸며내서 답하는 것보다 면접관의 반응이 좋았다.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내 주위 친구들은 면접 과정에서 그 자격증이 무엇인지, 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직무와 무관해 보이는 자격증의 경우 그 자격증에 대해 설

명해달라는 질문이나, 왜 취득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일 뿐이므로, 당황하거나 굳이 답을 꾸며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궁금하다면 자신의 이력서를 제3자에게 보여주고 내 이력서의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졸업은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휴학 기간에는 뭘 했는지, 수험 생활을 했다면 하다가 왜 포기했는지, 왜 합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미련은 없는지, 혹시 회사에 입사한다면 나중에 다시 전문직 시험을 공부할 생각이 들지 않을지 같은 것들 말이다.

개중에는 공격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 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점도 좋은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는지’ 같은 질문도 종종 받았다. 질문 받았을 당시 ‘고학년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서 시험 기간에 시간을 별로 안 들이고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진솔하게 답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면접관 분들로부터 기특하다는 듯한 흐뭇한 시선을 받았고, 그 면접은 최종 합격했다. 이 면접을 통해 면접관은 정답을 맞추려는 듯한 답변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좋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니 모든 질문에 미리 대비하거나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지 말자. 솔직한 대답이 더 진실되게 전달되기도 한다.

## 5. 입사 후에 대한 질문



### '입사 후 모습'에 대한 질문 예시

-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 (행정직의 경우) 어떤 부서에 가고 싶은지

기업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이나 직무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입사 후 모습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 기관, 병원, 대학 등 직무별로 채용하지 않는 행정직 면접의 경우 입사 이후 들어가고 싶은 부서가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 그러니 행정직에 지원한다면 입사 후에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6. 회사 이슈, 업계 이슈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회사 및 업계 이슈를 파악해 간다. 요즘 이 업계 트렌드가 무엇인지, 위협은 무엇인지, 위협에 대해 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경쟁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이 회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편으론,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지원자들과 달리 실무자(경영자)들은 회



사의 단점, 위기, 어려움에 대해 더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기업의 단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서 면접에 들어가면 좋다.

지금까지 면접 전 준비해야 하는 필수 대비 질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렇게 보면 '준비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만 그렇지 기본 질문과 직무 질문, 경험 질문은 회사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접 준비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면접 전날 지원동기, 회사 이슈 정도만 조사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지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보자.



## 3초 만에 결판내는 자기소개 기술



자기소개는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대부분의 면접에서 자기소개는 워밍업 질문처럼 주어진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자기소개 내용을 유심히 듣기보다는 이력서를 검토하거나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기소개를 할 때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첫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면접에서 첫인상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주로 입장하는 순간, 자리에 앉아 마주 보는 순간,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순간이다. 때문에 자기소개는 내용보다는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의 당당한 모습과 자신감에 집중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는 자기소개 준비 시 내용보다는 자세와 태도를 더 강조하는 편이다. 상식적으로, 힘없이 자기소개를 하는 지원

자에게 눈길이 갈 리 없다. 그리고 그러는 지원자를 뽑겠다는 생각이 들 확률은 더더욱 낮다. 그러므로 면접에서 처음 입을 때는 순간인 자기소 개를 할 때는 최대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자.

## 1. 자기소개 내용 구성법

자기소개에서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소개 내용에 따라 후속 질문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많은 취준생들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많이 고민하지만, 자기소개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내용  |          | 예시   |
|-----|----------|--|
| 인사말 |          | 안녕하세요, 지원자 토크토게입니다.  |
| 본론  | 역량1 - 근거 | 저의 최고 강점은 마케팅에 필수적인 '기획력'을 갖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0년의 광고 동아리 활동, 0번의 공모전 참가, 0번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총 0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 제안해본 경험이 있으며, 그 중 0000은 실제로 론칭되며 000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
|     | 역량2 - 근거 | 동시에 저는 데이터 분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년간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며 GAIQ를 통한 유입 분석을 하였고, SQL을 활용해 00과 CRM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
| 마무리 |          | 마케터는 다양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기획하는 눈과 데이터를 보는 눈 외에도 그 동안 00개의 활동을 하며 누구보다도 다양한 시각을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00에서 00하고 싶습니다.                                  |

## 인사말

인사말에서는 ‘안녕하세요, 지원자 000입니다’라고 담백하게 자신을 소개하면 된다. 조금 더 특별하게 내용을 구성하고 싶다면 자신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넣거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받았던 칭찬을 언급해도 좋다.

## 본론

본론에서는 본인의 핵심 역량 두 가지를 소개한다. 이때 첫 문장에서는 직무 역량을 말하고, 그다음 문장에서는 자신이 역량을 쌓은 방법, 또는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무 경험을 근거로 제시한다. 다음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 하나를 먼저 두괄식으로 말하고, 직무 경험 한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이렇게 본론에서는 핵심 역량 두 가지와 그에 대한 근거를 한 가지씩 제시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직무 역량은 가급적 직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성실함, 책임감, 꼼꼼함 등은 듣기엔 좋은 단어지만, 어느 직무에서나 필요한 역량이고, 당연시되는 역량이다.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인 것보다는 직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량, 지식들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

간혹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엉뚱한 경험을 소개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자기소개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1순위 경험을 소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1순위 경험이란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직무 관련 경험’이다. 회계 직무 지원자라면 회계 자격증 취득 경험이나 회계법인 인턴 경험, 마케팅 직무 지원자라면 마케팅 인턴 경험이나 공모전 수상 경험 등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역량이거나 1순위 경험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설명이나 자격요건, 우대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일 직무에 100% 맞아떨어지는 경험이 없다면, 유사한 경험, 역량이라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한다. 예컨대 행원 면접을 준비한다면 1순위 경험은 ‘금융권 인턴을 하며 쌓은 대민 업무 처리 능력’이나 ‘AFPK, CFP 등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며 쌓은 전문 지식’ 등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면 행원에게 필요한 또 다른 역량, 예컨대 영업을 했던 경험이나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 재무·회계 등 관련 수업을 들었던 경험, 숫자를 다루며 꼼꼼함을 발휘했던 경험 등이라도 어필해야 한다. 1순위 경험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2순위, 3순위 경험이라도 영혼까지 끌어모으자.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근거를 제시할 때는 ‘다양한’ 등의 추상적인 단어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길 바란다. 추상적인 단어는 글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번이나 했는지 직접적인 횟수를 언급해주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갈수록 글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더 잘 기억에 남는다.

## 마무리

마무리는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글을 끝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글의 퀄리티와는 상관없이 추상적인 단어로 문장을 구상해도 괜찮다. 보통은 간단하게 입사 후 포부를 말한다. (예: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서 00하겠습니다.)

## 2. 자기소개 참고사항

첫째,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후속 질문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자기소개에서 언급한 내용은 당연히 꼬리 질문으로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미리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자기소개는 정말 달달 외워야 한다. 자기소개를 할 때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기소개를 막힘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그때 외운 자기소개는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달달 외웠었다.

한편으로, 준비해둔 자기소개를 면접에서 그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 면접에선 시간이 없다면 자기소개를 30초 미만으로 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지원동기 등 특정 내용을 포함하여 자기소개를 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소개는 정말 달달 외우되,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의 유연함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지금까지 알고 있던 취업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내용”

첫 독자가 전하는 말

스펙 준비 과정부터 회사를 선택하는 팁, 이력서와 자소서 쓰는 법, 필승 면접 공략법까지 담겨 있어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취준생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_베타리더 김예은

선배 언니가 옆에서 얘기해 주듯이 친근하게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취준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_베타리더 위혜리

취업 준비 과정에서 뭔가 막힌 기분이 들고 뻔죽한 답을 모르겠을 때, 자습서처럼 두근두근 꺼내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_베타리더 김유경

현재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과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_베타리더 송형호

막연하게 생각했던 취업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취업 준비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바로 '경험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_베타리더 양진서

누구보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했던 제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들 이 책을 읽고 부디 취업 1승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_베타리더 한지민



9 791156 640097 13320  
ISBN 979-11-5664-009-7

정가 19,500원